

특별취재



부안해상경비안전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위한 집중점검

하계 휴가철을 맞아 부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성철)가 여객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점검에 들어갔다.

이와 별도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예방교육과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파승·과적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조성철 서장은 "하계휴가철 다중이용선박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주요 항로에 경비정을 배치하고 긴급 구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예방교육과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파승·과적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부안군 다문화가정 독서 인성교육

부안군이 여름방학을 맞아 다문화가족 엄마와 자녀를 45명에게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이 지난 23일 부안군 청소년회관에서 인성교육이 실시됐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책을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짚어보고 자신감과 논리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코자 마련됐다.

결혼 이주여성 언어·문화적 이질감이 있어 본인 스스로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거나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많을 경우 자녀의 언어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국어가 아니기에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 책 읽기가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올바른 독서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 다 문화가족지원센터는 좋은 부모 되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책을 읽고 가족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려는 방안을 탐색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독서인성교육을 기획하게 됐다.

정읍 산외면 이치교 재가설 완료

산외면 이치마을 앞 이치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가설됐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3억원(특별교부세 9억, 시비 4억원)을 투입해 이치마을 앞 동진강을 횡단하는 이치교를 재가설, 25일부터 개통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이치교는 지난 1979년 준공돼 30년 이상된 교량으로 교각 하부가 세굴(洗掘, 강이나 바다에서 흐르는 물로 기슭이나 바다의 바위나 토사가 씻겨 패는 것)되고 교량상판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 정밀 점검 D등급 노후교량으로, 그간 재가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높았다.

이와 같은 주민여론을 수렴해 재가설 공사를 추진해온 시는 "재가설이 완료됨에 따라 그간 노후 위험교량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사전 재해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소행정 읍면동 책임제 '성과'

정읍시, 시행후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에 효과 쾌적한 환경에 기여

정읍시가 지난달부터 '청소행정 읍면동 책임제'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환경관리과에서 주·야간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나 원거리로 위치한 읍·면·동지역에 손길이 미치지 못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인력 부족에 따른 한계 등이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행정 읍면동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리과 주도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환경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이의 일환으로 각 읍면동 자체적으로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물론 이·통장회보 등을 활용한 밀착 홍보활동을 통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와 별개로 상습 무단투기지역과 임륜촌 그리고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 활동도 펼쳤다.

또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쓰레기 배출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을 고려해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 내 16개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시범 지원했다. 이와 함께 시는 회사 측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쓰레기종량제 교육을 실시할 것과 회사에서 종량제 규격봉투를 공동구입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이행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규격봉투 배포 후 외국인 밀집지역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이 늘어나면서 청소행정이 훨씬 원활해졌다"며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을 외국어로 제작 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이번 행사가 정읍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물론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했고, 특히 제주도 소비자들이 정읍 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이번 행사가 정읍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물론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했고, 특히 제주도 소비자들이 정읍 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읍시, 제주도 하나로클럽에서 신선 농산물 특판행사

씨 없는 수박 등 판매

정읍시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3개 농협(제주농협, 중문농협, 서귀포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신선 농산물 특판행사를 가졌다. 행사에서는 정읍지역 대표 농산물인 씨 없는 수박과 토마토, 방울토마토 3개 품목을 판매, 모두 1천9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시는 정읍간편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이정진)과 함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직접 선별한 고품질 농산물로 수도권 등 대규모 소비 시장

을 지속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매일 제철 농산물을 중심으로 관측행사에 나서고 있다.

이번 행사도 이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시는 "장기간 농산물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긴 장마로 농산물 판매가 저조함에 따라 휴가철을 맞아 국내 최대 휴가지인 제주도에서 관측행사를 가졌다"며 "이번 행사가 정읍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물론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했고, 특히 제주도 소비자들이 정읍 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판로 개척, 지속적인 관측활동을 통해 정읍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의 소득 향상을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리과 주도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환경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리과 주도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환경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리과 주도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환경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리과 주도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환경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리과 주도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환경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리과 주도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환경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리과 주도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환경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리과 주도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환경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리과 주도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환경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리과 주도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환경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리과 주도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환경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리과 주도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환경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리과 주도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환경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리과 주도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환경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리과 주도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환경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리과 주도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환경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리과 주도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환경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관리과 주도로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이나 환경 캠페인 등을 실시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한마음대회의 개최식에서는 우수 농업경영인에 대한 시상과 김제시연한회 정영상 회장의 대회사, 내빈의 격려사 및 축사가 있었다.

"농업경영인들이여 화합하라"

김제시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개최

농업경영인의 화합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제24회 김제시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가 지난 22일 이진식 김제시장, 김종희 국회의원, 나병문 김제시의회위원장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이하 한농연) 김진필 회장, 한농연 전북도연합회 유재관 회장 등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화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한마음대회 개최식에서는 우수 농업경영인에 대한 시상과 김제시연한회 정영상 회장의 대회사, 내빈의 격려사 및 축사가 있었으며 제2부 행사에는 민속 체육경기와 장기자랑, 노래자랑 등의 문화행사로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정영상 및 감사장 수여에서 김제시장 표창에는 김태근(신풍

동), 이장업(성덕면), 박노원(용지면), 이재선(백구면)씨가 한농연 중앙연합회장 표창으로는 김신주(금구면)씨가, 한농연 전라북도연합회장 표창 송정목(검산동), 한국농어민신문사 표창 정진욱(죽산면), 김병석(공덕면)씨가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한농연김제시연합회 정영상회장은 대회사에서 "어려운 농업현실에서 지역 농업의 활로 모색과 영농정보 교환 등 농업경영인 단합과 친선도모를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이번 한마음대회를 통해 김제시농업경영인회가 한층 더 발전하며 농업경영인 상호간 화합하는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태기 기자

김제시, 매니페스토대회 우수상

주민참여 분야에서 성과 인정

김제시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16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참여 분야에서 전국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올해에는 역대 최다인 125개 기초지자체가 307개 사례를 응모하여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본선에 120개 기초지자체의 164개 사례에 대한 현장발표와 심사로 진행되었다.

경진대회 심사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현장발표를 참관한 타지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참여자 평가단의 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 경진대회는 청렴 일자리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청년문제해소, 주민참여, 소식지 등 7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김제시는 지자체간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주민참여 분야에서 "튼튼하고 안전한 사람중심 지역 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자원순환형 시민연계커뮤니티 구축'이라는 주제로 응모하여 당당히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김제=곽태기 기자



용동면지 발간을 기념하고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면지 출판 기념회가 용동면 전통문화생활관에서 열렸다.

정읍 용동면 '용동면지' 출판 기념회

지난 22일 '용동면 개청 100주년 기념' 용동면지 발간을 기념하고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면지 출판 기념회가 용동면 전통문화생활관에서 열렸다.

용동면지편찬위원회(추진위원장 김현수)가 주관한 행사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열위원장을 앙심묵 부시장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 전북도의회 이학수 산업경제위원장 정읍시의회 황혜숙 운영위원장과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 그리고 김승범, 김재오 의원 등 각 기관단체장, 출장인 용동면민 300여명이 참석했

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농악단 풍물공연이 펼쳐졌고 1부 기념식에 이어 제2부 시립국악단의 위문공연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문인으로서 남다른 애향심으로 면지 발간에 기여한 공로로 송동근 시인이 면지편찬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김현수 추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발간한 면지가 용동면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현재는 물론 후대에도 중요한 문화유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곽태기 기자